

노르웨이는 나에게 단순한 외국 이상의 나라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우연한 계기로 노르웨이어 독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4년 가까이 공부했다. 그러다 보니 노르웨이의 문화 전반과 다양한 사회 제도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러던 중 'KU 글로벌 탐사연구 노르딕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에게 꼭 맞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지원했고, 우리대학 참가학생 10명 중 하나가 되어 노르웨이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8월 3일 늦은 밤 노르웨이에 입국하여 4일에는 오슬로 시내를 조금 둘러보다가 5일에 고려대에서 같이 온 학우들과 함께 릴레함메르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오슬로에서 릴레함메르까지는 2시간이 조금 안 걸렸다. (참고로 기차 표를 살 때 '학생' 옵션으로 구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반 성인 요금보다 훨씬 저렴하다.)

릴레함메르 역에서 내려 일행과 함께 난센스콜렌 *Nansenskolen*까지의 길을 검색하고 있는데 어느 신사분이 다가와 난센스콜렌에 가느냐고 물었다. 그렇다 답하니 자기도 같은 곳에 가는 길이니 함께 가자고 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분의 성함은 가이어 헬게센 *Geir Helgesen*으로, 40년간 한국 및 북한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이시고, 현재는 코펜하겐 대학교에 계신데,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인터뷰한 일이 있으신 분이였다. 또한 NEWDAY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기도 했다. 덴마크 분이시지만 노르웨이 태생이시라며, 내가 노르웨이어를 할 줄 안다고 하자 반가워하셨다. 노르웨이어로 짧은 대화를 나누던 중 난센스콜렌에 닿았다.

난센스콜렌(영어로는 'The Nansen Academy')은 노르웨이의 Folkehøgskole중에 하나로, 인문학(철학, 문화, 사회, 문학 등)과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형식의 학교가 없다. 노르웨이에서 한 해에 태어난 청소년 중 약 10%가 이러한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데,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입학 전 '갭 이어'에 이러한 Folkehøgskole에 가기도 하고, 고등학교 대신 가기도 하고, 대학 졸업 후 가기도 한다. 따라서 구성원의 연령대가 매우 다양하다. 1년짜리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원 기숙사제인 것도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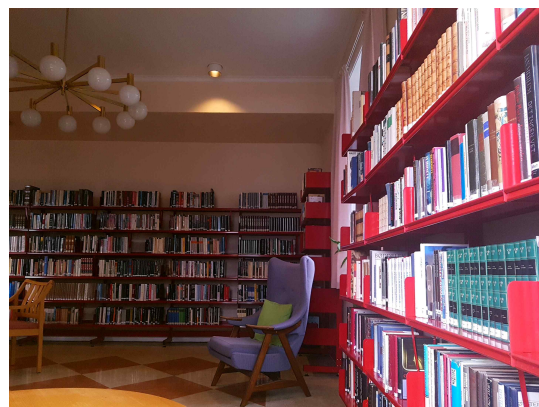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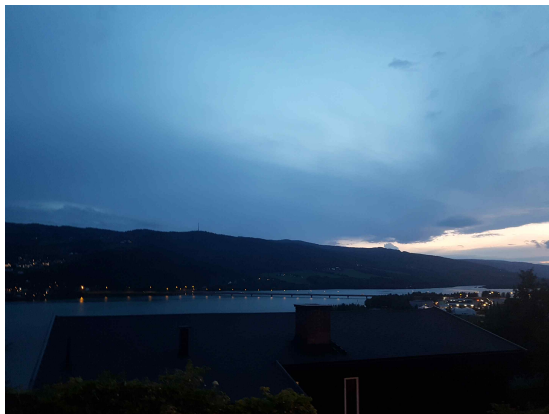


<8월 5일, 난센스콜렌에서의 첫날 석양.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난센스콜렌 본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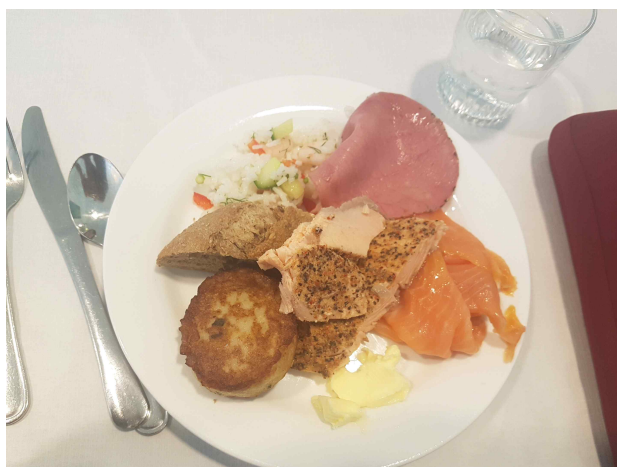
<난센스콜렌 문 옆에 붙어 있는 현판. "난센스콜렌 - 노르웨이 인문학 아카데미.">

난센스콜렌은 그 중에서도 1938년 창립되어 역사가 오래된 학교이다. 이름은 탐험가이자 외교관이었던 노르웨이 위인 Fridtjof Nansen에게서 따 왔다. 개교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독일군에게 점거당한 역사도 가지고 있다. 현재는 학교 건물 안에 '난센 평화 센터'를 마련하여 평화 교육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다.



<좌: 학교에서 내려다보이는 노르웨이 최대의 호수인 Mjøsa, 우: 난센스콜렌 도서관>

학교와 주변의 모든 장소가 아름다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곳이 도서관이었다.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주제별로, 언어별로 책이 잘 분류되어 있었고 둘러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벽난로가 있는 방이 있었다.



<난센스콜렌에 머물던 중 어느 날의 점심식사>

난센스콜렌에서는 점심마다 구운 연어가 제공됐다. 매끼 슬라이스된 햄, 치즈, 연어와 거친 '노르웨이식' 곡물빵이 있었고 다른 메뉴들은 조금씩 바뀌었다. Folkhøgskole의 또다른 특징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부엌일도 함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생활을 통한 교육을 추구한다. 우리가 머물 때에는 식기류를 직접 정리하는 정도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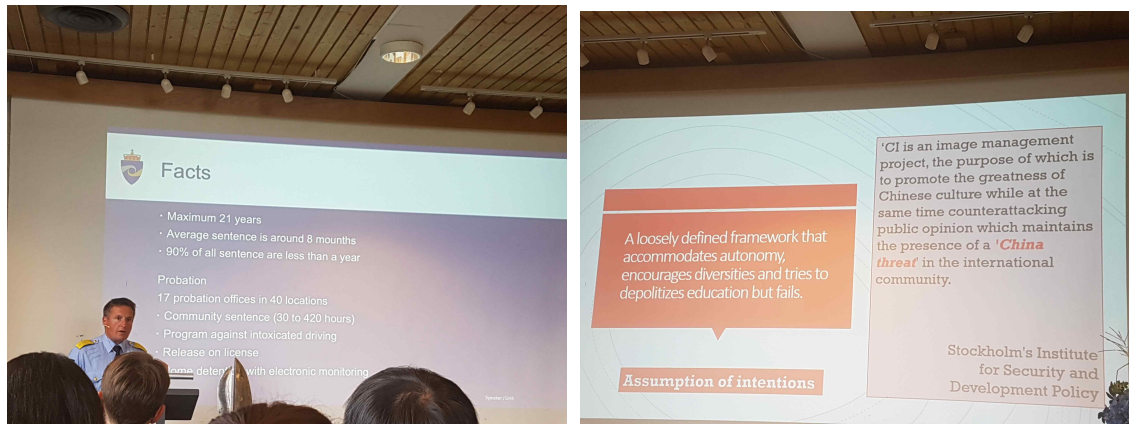
<좌: 열린 공간 박물관 마이하우젠Maihaugen 입구 (8월 6일), 우: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노르웨이 작가인 시그리드 운셋Sigrid Undset의 집을 보존 전시한 박물관 Bjerkebak (8월 8일, 날씨가 아주 좋았다)>

난센스콜렌에 머무는 동안 릴레함메르에 있는 두 곳의 박물관에 다 함께 방문했다. '시그리드 운셋의 집 Bjernebak'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전에 시그리드 운셋이 쓴 작품을 읽어본 적이 없이 방문하게 되어 아쉬웠다. 한국에는 그의 책이 번역된 바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에도 그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NEWDAY 프로그램에서는 매일 한 가지의 주제를 공유하는 여러 강의들을 들었고, 40여분 간의 짧은 강의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고, 꽤 자주 패널토론과 나라별 Q&A 등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있었다. 모든 강의가 훌륭했는데,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도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들이었다. 예를 들어 '교육과 소프트 파워' 강의에서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정책에 대해 다루었지만 결국 나는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 정책은 어떤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강의와 Q&A 세션에서 발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매일 저녁 일과가 끝나고 학교 건물 뒤 정원에



둘러앉아 맥주 한 잔씩 하며 자연스레 서로 공유하였다.



<좌: 노르웨이 교정 시스템에 관한 강의, 우: 공자학원으로 대표되는 중국 소프트파워 정책에 관한 강의 모습>

강의와 Q&A 세션을 통해 볼 수 있었던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의 적극적 의견 교환도 흥미로웠지만, 정말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렇듯 격식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이었다. 예를 들어 강의하신 선생님 중 한 분인 다니엘 A. 벨(Daniel A. Bell)은 캐나다 출신인데 중국의 실력주의(meritocracy)를 옹호하며 중국에게 서양식 민주주의가 어울리지 않는 이유를 주제로 강의하셨다. 이는 매우 흥미로웠고, 프로그램 기간 내내 우리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한 번은 이에 대해 두 노르웨이 학생이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벨 교수의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로의 나이, 전공분야, 학위 수준에 관계없이 완전히 동등한 입장에서 주장의 전제부터 차근차근 확인하며 서로 동의하는 지점과 그렇지 않은 지점을 찾아 서로를 설득하려고 하는 비격식 토론의 장면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난센스콜렌의 학생들은 정말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우리에게도 같이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NEWDAY 프로그램의 강점은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에게 훌륭한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준비'가 된, 할 말이 있고 듣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 동료 학생들과 함께 자기 나라에 대한 크고 작은 불평과 자랑에서부터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과 토론까지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더 컸다. 9일이 지난 뒤 우리는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모두 대단히 가까운 친구들이자 대화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이번 글로벌탐사연구 노르딕 프로그램으로 인해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한다면 설부른 소리일까? NEWDAY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나는 한참이나 난센스콜렌에서의 경험에 압도당해 있었다. NEWDAY 프로그램을 통해 그토록 고대하던 노르웨이를 경험했고, 그들이 토론하는 방식을 직접 겪었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공유했고, 다시 얻기 어려운 소중한 친구들을 얻었다. 이것은 정말로 '돈 주고도 못 할' 경험이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마음이 끌리는 분야를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 배웠고, 앞으로의 진로 계획을 좀 더 분명히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국제 정치나 북유럽 교육제도, 토론 등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내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